

■ 2026년도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다원예술 창작산실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5년 12월 13일(토) 10:30~15:3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5년 12월 18일(목) ~ 12월 20일(토) 9:00~18:00 / 나주 본관 중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윤희, 김진이, 김해래, 양지윤, 유원준, 한정엽

<2026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은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접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작품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원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 및 단체 프로젝트 외에 페스티벌 지원을 시범적으로 신설하여, 다원예술의 실험과 교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플랫폼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의는 사전 공지된 사업수행 역량(10%), 작품성(30%), 실현가능성(40%), 공공성(20%)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363건 중 행정 결격 4건을 제외한 359건에 대해 엄정한 사전 전수 검토를 마쳤으며,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 1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다원예술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주제의 동시대적 유의미성과 탐구의 깊이, 예술적 고유성, 그리고 실행계획의 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 다원예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심의에서는 더욱 넓어진 주제의 스펙트럼과 과감하고 실험적인 표현 방법, 새로운 장르 융합의 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완성도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도 다수였습니다. 다만, 기술 융합 프로젝트의 경우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기술적 구현 자체에 천착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기술의 활용을 넘어 기술을 바라보는 예술적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작품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신설된 페스티벌 지원은 생태계 성장에 기여해 온 기존 페스티벌과 신규 기획안을 고루 볼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페스티벌은 다원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선정 단체는 프로그램 참여 예술가에 대한 개방성 확대와 관객 접근성 강화, 그리고 과정의 아카이빙에 내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술가의 치열한 고뇌와 오랜 연구가 담긴 우수한 지원서가 많았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의위원회 모두 깊은 아쉬움과 양해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정된 단체에는 축하와 더불어 다원예술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본 사업이 예술적 성취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다원예술 창작산실 심의위원회 일동